

비판교육학을 통한 교육 국제자원활동의 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Volunteering in Education through Critical Pedagogy

허창수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Changsoo Hur(cshur@cnu.ac.kr)

요약

교육 국제자원활동은 교육을 통해 지역 재원을 끌어낼 수 있는 자원활동 중의 하나이다. 이는 최근 들어 국제자원활동에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교육 국제자원활동 참여 인가와 지원은 급증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은 그것이 가진 근본적인 의미인 지역 재원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스펙 쌓기 위한 과정, 자기 성장을 위한 봉사학습, 그리고 시혜적인 차원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국제자원활동이 추구하는 방향이 부재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본 논의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 국제자원활동 방향에 지평이 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의 필요성과 함께, 본 논의는 비판교육학을 제시하고 있다. 비판교육학은 허위의식을 해체함으로써 의식과 행동에서 자율성과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비판교육학은 교육 국제자원활동에서 의미하는 자원활동이 가진 지역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끌어내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본 논의는 강조하고 있다.

■ 중심어 : | 비판교육학 | 국제협력 | 국제자원활동 | 세계시민주의 |

Abstract

International volunteering in education is one of activities in volunteering. Volunteers have been recognizing that educational activ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volunteering. Recently, there is an increase of participants and various supports for educational volunteering in South Korea. However, regardless of the essential meanings in which activities commonly attempt for deriving local sources in terms of human and resources, many participants in volunteering take advantages of their own purposes and providing their supports in terms of a mercy. This study asserts that this situation comes from the lack of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volunteering. Therefore, this study realizes a need of providing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purports to suggest it for international volunteering in education. It is the critical pedagogy. Critical pedagogy tries to deconstruct false-consciousness of the oppressed through education. And, it emphasizes that people could have autonomy and self-directed sovereignty. Accordingly, critical pedagogy should be a theoretical background of activities for deriving human's autonomous consciousness and their own resources. Thus, it might be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international volunteering in education.

■ keyword : | Critical Pedagogy | International Cooperation | International Volunteering | Cosmopolitanism/ Global Citizenship |

* 본 연구는 2014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지원사업(CNU학술연구비)에 의해 진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03월 30일
수정일자 : 2016년 04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5월 11일
교신저자 : 허창수, e-mail : cshur@c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외봉사활동은 이제 특수한 집단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원하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널리 퍼져있다[1]. 목적의 특수성을 떠나 이에 참여할 기회도 상당히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필요성 또한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봉사활동 전문 집단을 형성해 가면서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활동 전문가 또는 활동가들은 이와 같은 활동을 확대해 왔으며, 종교 집단은 시혜적 차원과 선교라는 의미를 담고 세계 곳곳에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대학생과 일부 중·고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SPECification)과 봉사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에서 장기간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여행 상품으로까지 발전하여 '착한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외봉사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도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지원을 수혜받는 국가에서 공여하는 국가로 전환되었고, 이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만, 해외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해외봉사활동은 보편화 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해외봉사활동은 국제자원활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학자와 활동가들은[1][2]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봉사활동이라는 용어는 시혜적인 차원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재원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으로써 본질적인 의미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국제자원활동으로 부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활동가뿐 아니라 일부 학자들도 전자보다 후자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국제자원활동으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

국제자원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이익은 모두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면밀하게 생각해보면 최종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 같다.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활동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이익을 위한 논리에 빠져 허위의식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불교가 마치 생활 철학처럼 되어 있는 어느

한 국가에서 다른 종교 집단이 선교의 목적으로 활동한다면 그것은 그 집단이 믿는 종교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믿음에서 하는 것이며 종교만이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다소 왜곡된 의미를 담은 활동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이로부터 많은 갈등을 양산하기도 한다. 실제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특정 집단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국제자원활동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자원활동이 가진 의미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오해는 국제자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2].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자원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 기초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제자원활동에서 중요한 개념의 토대는 세계를 공동체로 생각하며 공평성과 평등성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우선 살펴봐야 한다. 반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원활동은 그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자원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원조사업의 평가에서 공여자의 이익이 수혜자보다 우선시되어 왔음을 지적해왔고[3], 많은 연구들이[4-13] 이미 국제자원활동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고 참여자의 개인적 이익이나 성장이 우선시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제자원활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국제자원활동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식전환을 통한 변화의 잠재성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자원활동의 다양한 영역 중 교육활동, 즉 교육 국제자원활동에 배경이 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문헌고찰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문헌고찰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해당 연구 분야의 현황, 문제 제기, 이론적 기초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4]. 본 연구는 첫 단계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의 필요성

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을 포함한 국제 자원활동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선행연구 분석을 위해서 활용한 도구는 개념적 준거이다. 이는 활동가와 학자들이[1][2] 주장하는 국제자원활동이 가진 의미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즉, 국제자원활동은 세계를 무대로 지역 재원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를 준거로 하여 선행연구들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II 장 연구 동향 이해와 논의를 위한 III 장 1절 연구 주제의 중요성에 기술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기 위한 문헌고찰을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주제 관련 연구와 동향 파악을 통해 논의 쟁점을 도출하고, 교육 국제자원활동의 의미를 재개념화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국제자원활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론적 배경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시각으로 현황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인 비판교육학을 선택하여 교육 국제자원활동의 본질적 의미 관련 타당성 판단을 위한 고찰을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III 장 2절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 국제자원활동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국제자원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활동 그 자체도 제시하는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본 연구는 기대하고 있다.

II. 한국의 국제자원활동 연구 동향 이해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서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며, 최근 봉사학습이라는 개념이 논의되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학문 영역과 비교할 때 국제자원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본 논의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국제자원활동에 초점을 맞췄으며 논의 중심인 배경 이론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학자들은 국제자원활동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논의

하고 있었다. 참여 동기에 있어서는 개별적이며 개인적인 목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7], 국제자원활동은 참여자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5],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 청년들이 국제이해, 다문화 감수성 등이 부족함을 암시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15].

참여 동기와 현지적응에 관한 연구의 한 예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7]. 버킷리스트 같은 하고 싶은 일, 재능나눔, 스펙 쌓기라는 개인적 관심과 부모의 영향, 사회복지학 전공, 우연한 기회 등과 같은 상황적 동기로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적응과정을 보면 환경, 문화,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동시에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적응해가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주체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과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기와 현지 적응의 어려움은 흔히 한국의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들은 참가자들이 국제자원활동의 경험으로부터 국제이해, 다문화 감수성, 인권 등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코피노(Kopino: Korean + Filipino)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다. 1990년 이후 각종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게 된 한국인 남성과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많은 수가 빈민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을 돕고 있는 단체가 코피온 어린이재단이다. 이 재단의 실천 사례에서 해외 NGO(INGO)들과의 협력이 자원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관심 및 지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지만[12], 한국 참가들은 수혜자들의 인권과 존엄성 보호 등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와 현지 사회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과 존중의 태도가 필요함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자원활동 경험이 가진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5], 다문화 수용성이나 세계 시민의식의 함양이라는 목표 아래 참가자들은 자아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장은 매우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 NGO와 연계하여 진행한 약 8일간의 단기 대학생 국제자원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6]에서 참여자들은 세계시민주의적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형성에 매우 긍정

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NGO 직원들을 통한 효과성 검토에서 '단기간'과 '대학생'이라는 특수성과 관련하여 자원활동에 관한 기막힌 생각을 얻어 대학생들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도움되었지만, 행사성 봉사와의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제자원활동은 세계시민주의를 키우는 역할은 분명한 것 같다[8-10]. 하지만 국제자원활동은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수혜자보다는 공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활동은 일부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에 연구들은 [16-18] 자원활동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한국 정부가 약 10여 년간 진행한 라오스 원조에 관한 평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쟁점을 도출했다[3]. 1) 우의식 원조, 2) 전략이 없는 원조, 3) 공사부터 벌이는 원조, 4) 가시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원조, 5) 구속성 원조, 6) 공여국이 주인 행세하는 원조, 7) 사후관리 없는 원조, 8) 과정을 알 수 없는 원조, 9) 현장과 괴리된 원조, 10) 국민보다 앞선 '정부'가 그들이다. 이러한 쟁점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한국의 원조는 공여국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홍보 성격이 강했다. 또한, 라오스 한 마을의 청년센터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4]에서도 유사한 공여국 중심의 자원활동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특히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를 다양한 의례 사슬 개념 [19]을 통해 해석하고자 하였다. 상호작용이 생산해내는 의례의 사슬들은 의사결정, 학습, 음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청년센터라는 공간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는 국제자원활동의 특성을 탈식민지성에 기초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흥미로운 것은 초기부터 이를 이끌어가는 외부 책임자의 중추적인 역할이 지속되었고 그가 가진 이념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교육 국제자원활동은 공여자나 이를 지원하는 자원활동자들이 그 협력에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식민성을 담은 국제자원활동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해외원조가 공여국의 국익을 위해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경고하는 학자들은[20], 이러한 원조를 통해 선진국 자원과 식량 확보뿐 아니라 상품 시장과 투자 확대, 기술과 제도 지배와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예컨대, 국제자원활동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복구사업으로 시작한 워크캠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식민주의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20]. 이는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고민했는데 냉전 시대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러한 탈식민주의적인 시각에 의한 자원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미국은 1961년 Peace Corp를 창설해 반제국주의적 정서를 담아 제3 세계 개발을 시도했다. 또한, 세계시민주의를 국제자원활동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예컨대,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다섯 가지 요소로 이를 판단하였다[10]. 이들은 다국적의식, 지구공동체 의식, 국가정체의식, 시민의식, 민주의식이다. 그리고 자질요건에 초점을 두고 국제적 사고영역, 국제적 이해영역, 가치 및 태도 영역, 사회적 기능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9]. 이 연구들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국제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8-10].

요컨대, 한국의 선행연구에서 국제자원활동은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들의 활동이 공여자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동시에 이를 경고하고 있었다. 이에 국제자원활동의 방향을 세계시민주의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국제자원활동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담은 이론적 배경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III. 교육 국제자원활동과 비판교육학

앞 장에서는 국제자원활동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자원활동을 위한 이론적 배경 논의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다양한 국제자원활동 중 교

육은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 국제자원활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자원활동의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장의 1절에서는 국제적인 흐름을 통해 국제자원활동에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교육 국제자원활동을 위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비판교육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교육 국제자원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1. 교육 국제자원활동의 중요성

국제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로 등록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선정될 당시 GNI 대비 0.1%(약 9억 1만 달러)에서 2014년 당시 0.13%(약 18억 1만 달러)로 GNI 비율과 비교할 때는 성장 폭이 작아 보이지만 금액 면에서 보면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큰 폭을 보인다[21]. 이는 회원국 평균이 0.3%를 넘어서는 것과 비교할 때 향후 지원 금액은 현 속도보다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원은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는 데 전자는 지원에 투입된 자본을 회수할 목적이 있으며, 후자는 투입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국제자원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저개발 국가를 위해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강조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교육활동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 2015년도 11월 자료에 의하면[22], 전체 23.8%를 교육에 지원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은 보건의 16.7%와 비교할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자원활동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1990년 155개국 대표와 150개 정부 및 비정부 기관 대표가 국제회의에 모여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선언하였다[23]. 그 내용은 향후 10여 년간 모든 아동, 청년, 성인을 위해 양질의 기초교육을 목표로 정하였다. 10년 후 국가들은 EFA가 추구하는 목표에 달성했다고 평가하였지만 이에 대해

서 확실한 타당성이 마련될 때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까지 연장하였다[24].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6개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 1) 영유아 보육과 교육 증진, 2) 초등교육 보편화, 3) 청소년과 성인의 학습기회 보장, 4) 성인 비문해율 50% 감소, 5) 교육의 양성평등, 6) 교육의 질 향상이 그들이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은 한국의 인천에서 개최되었고, 1/4세기 정도 진행된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는 5개 방향으로 전환하고 확대한다[25]. 1) 교육을 위한 권리, 2) 교육의 공평성, 3) 포괄적 교육, 4) 교육의 질, 5) 평생교육, 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교육을 위한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하나이며 동시에 인권의 핵심이다. 따라서 전 생애 주기에서 교육을 위한 권리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교육은 소외된 여러 계층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공동체나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의 공평성은 평등성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다. 포괄적 교육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 능력, 특성을 고려한 교육,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방향을 담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수-학습에서 촉진해야 하는 능력, 지식, 가치, 태도 모두 개인, 국가, 세계 그리고 직업 세계의 요구에 부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의 의미 또한 담고 있다. 따라서 이에 기초가 되는 것은 능동적이고 협력적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며, 이를 인권, 세계 행복, 21세기 고용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은 공식, 비공식, 무형식 교육의 기회를 전 생애에 걸쳐 확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고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일종에 패러다임 이동으로 볼 수 있다. 교수 및 훈련에서 학습 중심으로, 지식 전달에서 개인 역량 개발 중심으로, 특정 기술 인식에서 잠재적 창의성의 발견, 완화, 연계 중심으로 이동이 이러한 패러다임에 포함된다.

요컨대, 국제협력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그중 무상 지원은 국제자원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중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교육포럼에서 세운 목표처럼 삶의 생애주기

에 적합한 역량 강화, 공정성, 평등성, 인권, 자주성, 자율성 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국제자원활동은 시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2. 교육 국제자원활동과 비판교육학

교육 국제자원활동이 가진 여러 목적 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수혜를 받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고 잠재성을 걸고 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이 가진 허위의식을 해체하여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논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주장하고 싶다. 첫째, 세계시민주의이다. 이에 관한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다[8-10]. 세계시민주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세계시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식을 통해 지구촌 구성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적합한 개념은 다국적의식, 지구공동체의식, 국가정체의식, 시민의식, 민주주의의식이며[10], 국제적 사고영역, 국제적 이해영역, 가치 및 태도 영역, 사회적 기능영역[9]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또한, 정치와 사회학적 세계시민주의의 핵심은 타자(the otherness)의 다양한 문화, 미래, 본성, 객체, 합리성 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26], 세계라는 의미에 초점을 두기보다 소수자, 이방인, 주변인 등 타자에 대한 이해,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정 경계의 해체, 혼성적 가치 추구 등을 포함하는 것을 세계시민주의로 정의하고 있다[27].

두 번째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탈식민주의이다. 교육 국제자원활동에서 신식민주의에 대한 우려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16]. 그 배경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와 같은 국제협력의 이면에는 식민주의의 개발을 통한 자원을 수탈하고 국제적 기업의 이익이나 홍보의 추구가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도구적 이론으로써 탈식민주의는 적합하다.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각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적인 이해를 통해 자주성

과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28]. 이에 기초한 국제자원활동은 수혜 대상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재원을 끌어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주성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배경 이념이 된다. 또한 이것이 가진 특성은 국제자원활동을 공여하는 입장 측이 가진 무의식적 자신의 이익 추구 성향을 검토하고 경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우 적절하다.

위 두 이론적 배경은 교육활동뿐 아니라 국제자원활동 전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교육 국제자원활동은 좀 더 교육에 근접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탈식민주의를 모두 기초로 하고 교육영역에 거대담론 성격의 배경이론이 될 수 있는 비판교육학이다. 비판교육학은 그 범위가 방대하여 다양한 방향과 주장을 담고 있다. 비판교육학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을 해체하는 방법으로써 비판적인 사고를 강조하며 이를 실천까지 끌어내기 위한 수행으로써 교육적 실행을 강조하는 이론적 배경이다. 의식의 해체와 해방은 인간 자신을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유도하며 결국 스스로 주어진 여건을 해체와 해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천을 교육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교육포럼에서 세운 목표와 유사하다.

비판교육학은 1923년부터 시작하여 1930년대에 성립된 독일 프랑크 푸르트 학파에서 발생한 비판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 이후 문화라는 요소가 결합하고 1990년 이후 페미니즘, 탈근대주의 등 다양한 이론들이 접목되면서 비판이론이 가진 근본적인 사유 방식과 해방이라는 궁극적인 방향은 공유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양화되었고 실천과 실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비판이론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이론에 기초하고 있지만, 하나의 독립된 이론적 배경으로써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학이라는 명칭이 붙어 이론적 배경과는 달리 교육학의 일종으로 오해되는 때도 있지만 이론은 실천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주장처럼[29] 실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붙은 명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론적 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특히 P. Freire, P. McLaren, 그리고 S. Cho[30-32]의 개념과 주장에 기초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은 비판교육학의 핵심 주제로 지식, 문화, 계급, 헤게모니, 이데올로기, 담론, 잠재적 교육과정, 문화 자본, 문화정치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들의 조합에 의해 형성되는 담론들이 주요 개념이라고 하고 있다. 예컨대, 공학적 기술에 기반을 둔 교육 체제는 은행 적금식(banking system)[29]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지식을 비판적인 사고 없이 습득하여 쌓아 두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과 담론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으며, 이로부터 지배계급은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고 이러한 문화정치적 지배계급의 문화 자본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는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교육과정 상에도 진행되지만, 더욱 영향력이 있는 것은 잠재되어 전해지는 잠재적 교육과정 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많이 알려진 대로 의사는 남자로 간호사는 여자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현상은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억압을 받는 계층은 허위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로부터 지배되는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활용한 교육 방법은 대화법이다[32].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여 억압되어 온 계층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로부터 허위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교육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활용하는 사고는 비판적인 사고이며, 이러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법을 비판교육학이라고 한다.

요컨대, 세계시민주의와 탈식민주의는 교육 및 국제자원활동이 추구해야 할 이론적 배경으로 자주 거론됐다. 비판교육학은 이를 기초로 하여 교육활동을 위한 담론으로써 교육 국제자원활동의 이론적 배경에 매우 적합하다.

IV. 결론

한국은 국제적 지위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목적으로 가지고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자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부족하다. 이에 국제자원활동은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것을 연구들은 지적해왔다[4-10].

국제자원활동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평과 평등 그리고 인권의 보장을 위한 방향을 위해 교육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24][25]. 또한, 한국의 ODA 통계[22]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육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자원활동에서 추구하는 방향의 핵심은 교육에 맞춰야 한다. 활동가들은[1] 국제자원활동은 탈식민성, 자율성과 자주성에 기초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원활동은 당사자의 재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육 국제자원활동은 교육을 통한 이와 같은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는 비판교육학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자원활동의 지향이 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은 우선 탈식민주의와 세계시민주의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세계시민주의는 세계를 하나의 마을로 인식하고 공평성과 평등성에 따라 지구촌 주민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이러한 의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자원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탈식민성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다. 이는 이미 일부 학자들[20]에 의해 제시됐는데, 그 개념이 가진 자율성과 자주성의 강조 때문이다. 교육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활동이므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세계시민주의와 탈식민주의에 기초한 이론적 배경으로 비판교육학은 적합하다.

비판교육학은 요약하면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을 해체한 후 자율성과 자주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육 국제자원활

등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교육적 활동이 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수혜국과 지역,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스스로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가진 재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 국제자원활동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그로부터 부작용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현 사회에서 필요한 것임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추구하기보다는 제시한 비판교육학적 입장에서 교육 국제자원활동을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배경으로써 비판교육학을 교육 국제자원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과 함께 논의를 마치려고 한다. 첫째, 현 교육 국제자원활동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은 대부분 현지 문화이해, 건강, 위생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 국제자원활동의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구성하는데 비판교육학은 이론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 국제자원활동의 실체는 교육적 실행이다. 이를 위해서 비판교육학은 비판적 사고와 이를 기초로 한 현상 이해, 그리고 억압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실천의 기초 이론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교육학에 기초한 교육 국제자원활동의 전체 과정 구성은 한국의 교육 국제자원활동이 가지고 있는 공여자, 즉, 참가자 중심 현 활동이 가진 특성을 자원활동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담은 수혜자 중심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선재, 강종안, 김동훈, 한재광, 양진아, 하재웅. 자원활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 [2] 허창수, “국제자원활동이 가진 교육과정적 의미 탐색: 한 활동가의 경험 이야기,” 교육과정연구,

제30호, 제3권, pp.295-321, 2012.

- [3] 오디에이와치(ODA Watch), *사람이 중심이 되는 원조를 위한 변화의 시나리오: 라오스 원조 종합 평가보고서*, 2010.
- [4] 고권혁, *국제자원활동의 유대의례와 교육적 이해: 라오스 한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미발간 석사학위논문, 2015.
- [5] 조혜영, 김정숙,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 참가 경험과 의미: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3호, pp.55-84, 2015.
- [6] 서홍란, 박정란,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기초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2호, pp.139-168, 2014.
- [7] 오단이, “국제자원활동 중기 및 현지적응과정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에서 파견한 캄보디아 L단체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6권, 제3호, pp.373-399, 2014.
- [8] 황기우, “대학생 해외자원봉사활동에 기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전망,” 학생생활연구, 제2010권, 제1호, pp.14-24, 2010.
- [9] 김선미, “대학생의 세계화, 정보화 역량분석,” 사회과교육, 제46권, 제3호, 125-145, 2007.
- [10] 지은림, “대학생용 지구시민의식 척도개발의 타당화 및 관련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제20권, 제2호, pp.151-172, 2007.
- [11] 홍은숙, 이화숙,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pp.137-153, 2015.
- [12] 박소연, 김진경, 이택영, “대학생 전공관련 자원봉사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 pp.376-384, 2011.
- [13] 신미아,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자아존중감 및 직업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1024-1035, 2013.
- [14] 이종승, *연구방법론: 교육·심리·사회*, 교육과

- 학사, 2009
- [15] 김희주, 주경희, 우수명, “국제(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코피노 어린이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6권, pp.135-163, 2013.
- [16] E. Cobbs, “Decolonization, the Cold War, and the Foreign Policy of the Peace Corps. Diplomatic History,” Vol.20, No.1, pp.79-105, 1996.
- [17] M. B. Smith and N. Laurie, “International Volunteering and Development: Global Citizenship and Neoliberal Professionalisation Today,” Transactions of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36, pp.545-559, 2011.
- [18] H. Perold, L. A. Graham, E. M. Mavungu, K. Cronin, L. Muchenwa, and B. J. Lough, “The Colonial Legacy of 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Vol.48, No.2, pp.179-196, 2013.
- [19] R. Collins, *Interaction Ritual Chains*, 진수미 역, 사회적 삶의 에너지: 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한울, 2009.
- [20] M. Ngo, *Canadian Youth Volunteering Abroad: Rethinking Issues of Power and Privi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oronto, 1012.
- [21] 한국국제협력단, 2014 KOICA 대외무역원조직적 통계, 2015.
- [22] <http://koica.go.kr>
- [23] The Inter-Agency Commission. *Meeting Basic Learning Needs: A Vision For The 1990s.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 1990.
- [24] UNESCO, *The Daker Framework for Action*, World Education Forum, 2000.
- [25] <http://en.unesco.org/world-education-forum-2015>
- [26] U. Beck, *The Cosmopolitan Vision*, Polity Press, 2006.
- [27] K. A. Appiah, *Cosmopolitanism: Ethics in a world of strangers*, 실천철학연구회 옮김(2008), 세계시민주의: 이방인들의 세계를 위한 윤리학, 바이북스, 2008.
- [28] L. T. Smith, *Decolonizing Methodologies: Research and Indigenous peoples*, Zed Book Limited, 1999.
- [29] A. Badiou, *Larelation Énigmatique Entre Philosophie et Politique*, 서용순 역, 투사를 위한 철학: 정치와 철학의 관계, 오월의 봄, 2011
- [30] P. McLaren, *Critical Pedagogy: A Look at the Major Concepts*. In A. Daeder, M. Baltodano & R. Torres (Eds.). *The Critical Reader*, pp.69-96, Routledge Falmer, 2003.
- [31] S. H. Cho, *Critical Pedagogy Social Change*, 심성보·조시화 역, 비판적 페다고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살림터, 2013.
- [32] P.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70.

저 자 소 개

허 창 수(Changsoo Hur)

정희원



- 2004년 8월 : 미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과학교육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전공(철학박사)
- 2010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과정, 비판교육학, 질적연구방법, 국제교육협력